

Community News

사역부서 소개

하나님의
용사들-
남성찬양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교회지하에서는 남자들의 묵직한 저음이 공간을 가른다. 조금후에는 하이테너의 미성이 들린다. 그리고 바리톤의 힘있는 소리가 이어지면서 멋진 화음이 완성된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남성찬양대의 우

렁찬 찬양이 지하찬양연습실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다. 남성찬양대는 찬양의 열정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모여져 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절로 싱글벙글해진다는 분, 기도의 영력이 뛰어나신 분, 목소리 크신 분 등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지만, 이들의 공통

점은 누구나 믿음의 용사라는 것이다. 남성찬양대에서는 믿음과 함께 절제된 목소리를 배우고 있다. 평소에는 집이나 직장에서는 큰 소리만 치시던 분들도 남성찬양대에 오면 절제를 배우게 된다. 아름다운 화음은 내 목소리를 남의 목소리에 맞출 수 있어야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성찬양대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8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예배 찬양과 교회내 각종 행사 참여, 자제 음악회, 외부 봉사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남성찬양대는

찬양에 관심있는 남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성찬양대원으로 참여하면 기도의 응답, 풍성한 교제, 인격수양, 폐활량 증대, 스트레스 해소, 봉사의 기쁨 등 모든 면에서 최

주님의교회 남성찬양대는 아직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용사를 위해 빈자리를 몇 개 남겨 놓았다. 신실한 일꾼, 믿음의 용사들이여 어서 속히 오시오, 빈 자리가 다 차기 전에!!!

문의: 박동수 안수집사(010-7140-3095)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캠프



7월 27일(월)부터 29일(수) 오전까지 주님의교회에서 파워풀 여름신앙캠프가 열린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교회의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 수련회가 어려운 지방의 미자립교회에서 오는 학생들이다. 가끔가는 천안, 인천 수원을 비롯하여 멀리서 마산, 영천, 진해, 여수, 창원, 고흥등 전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몰려온다.

“소통”(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학생과 교사 등 200여명이 함께하는 2박 3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찬양과 예배와 여러 활동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처음 진행하는 캠프로, 청소년사역본부에서는 2009년 특별히 주께서 사명으로 주신 거룩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품고 설계해 나가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 격려를 바란다.

박해성 목사



특별 세례교육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국에 돌아온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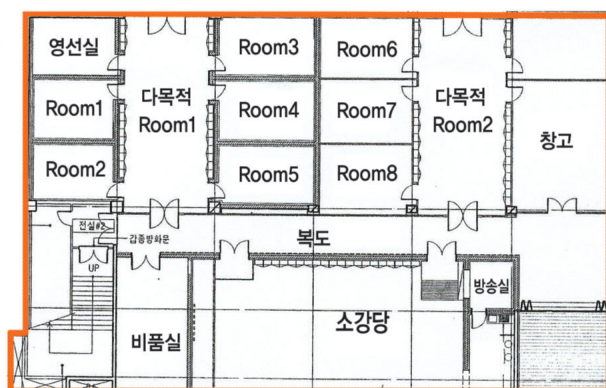
외유학생과 청년들의 세례교육이 7월19일, 26일 이틀간 초동부실에서 29명이 모여 시작되었다.

8월2일 세례식을 통하여 29명의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며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또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이들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임연옥 집사

지하주차장이 신뜻한 모임장소로 변신!!

지하주차장공사가 내일부터 약 두달간 진행된다. 교회 전체적인 성장에 비해 매우 부족한 모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목적모임실, 소강당 등이 자리잡게 된다. 지하주차장공사와 동시에 1층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편의시설이 준비될 것이다. (우측그림. 지하주차장 용도변경 평면도)



7월 정기 당회 결의사항

- 1 교회개척준비 T/F팀을 구성하기로 하다.
 - 2 북한결핵어린이돕기 후원결연을 결핵제로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8월 16일 주일 실시하기로 하다.
- 〈2009. 07. 10. 작성자 : 당회서기, 김현덕 장로〉

|오늘의 말씀|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다 이사야 35:1~2

통 권 제 253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7월 26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2009 비전트립>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여름은 여행의 계절. 그 중에서도 비전트립의 계절이다. 올여름 비전트립은 7월초에 다녀온 동티모르 외에 앞으로 캄보디아와 몽골, 키르기스스탄 세팀이 준비 중이다. 각 팀별 일정과 계획을 소개해본다.

몽골~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이번 비전트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땅을 향하여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몽골 비전트립은 8월2일 일요일 저녁에 출발하여 8월11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선교 사역지는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북쪽으로 10시간을 가는 시골마을로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게 되며, 주로 현지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이 중심이 될 것이다.

비전트립팀의 멤버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나현수 목사를 비롯하여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장년부 그리

고 영어예배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배경을 가진 16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비전트립을 준비하시는 나현수 목사님은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모임을 이끄시는데, 그 풍경이 어찌보면 이채롭기까지 하다. 그 동안 매 주일 3~4시간씩 조별 모임을 통해 기본적인 단기선교 교육은 물론이고, 현지 언어와 문화 배우기, 현지 사역내용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현지어로 번역된 복음송과 울동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어설픈 동작들을 보고 웃기도 하였고, 현지 음식 체험을 위하여 비빔밥에 시간을 쪼개어 동대문 운동장 주변의 몽골식당에 들러 맛있는 몽골음식을 즐기기도 하였다. 준비하느라 피곤함도

잊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좋은 사역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한 시간들, 팀원들의 영적 무장을 위하여 신약을 통독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참 소중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팀 멤버들은 하나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인과 그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

전윤식 집사

캄보디아~ 캄뚱을 향한 부르심!

캄보디아 비전트립이 8월2일~8월7일까지 캄보디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캄뚱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56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팀원들과 함께 의료 사역, 셀 방문 사역, 교도소 방문 사역 등을 주님의교회 과송 선교사인 이성민·김창숙 선교사와 함께 할 계획이다. 귀한 선교 사역지를 돌아보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주님의교회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Vision 을 품고 오는 비전트립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비전트립 기간중의 날씨와 안전, 하나님 안에서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여러 달란트로 이미지, 수지침, 풍선아트, 어린이사역 등 이런 저런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한다. 특히 이번 비전트립에는 7명의 장애인도 함께하는데 특별한 인도하심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기 원한다. 그 땅을 밟는 것 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께서 또한 그 땅을 만지시며 회복시키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하시리라.

김중호 집사

키르기스스탄

담당목사 외 다섯 분이 8월10일~8월15일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다.

파송되어 계신 윤영수 선교사의 사역을 격려하고 열방치과 방문과 현지신학교 방문 및 현지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중앙아시아 선교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올 예정이다. 이러한 사역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김승진 기자

12steps
성경공부 4단계를 마무리하며...

원형극인
노래한 이야기

일시 2009.7.29.수요일 7:30(pm) 장소 대예배실

늘 푸른 대학 개설	2면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3면
수련회 후기 EM, 고등부	3면
사역부서소개 남성찬양팀	4면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트랙에 선 모습을 보기만 해도 온 몸의 혈관이 팽창하고 머리가 꾸뻑꾸뻑합니다. 난 평정심을 유지해야하는 코치이거늘, 이 순간엔 잠시 별주부전 토끼가 되어 누군가에게 심장을 맡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겨우 포커페이스로 격려하시고 애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지는 건 용서해도 다치는 건 용서 안 해!”
얼마 전 있었던 전국 어와나 게임즈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와나 교사 3년차쯤 되니 이제 금메달보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수하고 들어오는 아이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어찌 위로해야 할 지 몰라 가슴이 뭉둥 뭉 때에 팀의 아이들이 별때같이 몰려들어 “괜찮아, 우리가 만회할게.” 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콕 뻗니다. 교회에서 매주 지지고 볶던 우리 아이들, 이상하게도 밖에선 참 멋져 보입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과 함께 서면 어디서 생겼는지 머리에 후광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내거나 신학생 같은 성경 암송 실력으로 트로피를 적적 받을 때 교

사로서 그 기쁨이 어찌 작다할까요. 허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게 있어서 ‘남부러운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 조금의 열등감과 아픔 한 자락도 안고 살며, 슬픔을 경험하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보다 패배를 통해 더 크게 배우고, 패배를 맞은 자만이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알기 때문이죠. 내가 이길 때는 몰랐던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여 넘치게 기뻐하지 않는 법도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실패조차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그 속쓰림을 잘 다스림으로써 쭉~쭉~ 자라나주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늘 잘하는 아이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 맘과 눈을 더 고정시키는 교사로 자라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늘 우리 교사를 보다 한 걸음 앞서 자라며 우리를 길러낸다는 점이지요.
어와나도 지난주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하나님과 우리 앞에 ‘더 나은’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또 웃고 장난치고 속을 썩이겠지요. 그 생각을 하면 벌써 제 심장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김유경 집사(어와나 교사)

북한의 결핵어린이를 위한 손길을 모읍니다

오는 8월16일(주일)에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ZeroTB World)를 통하여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후원결연 행사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교우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1.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ZeroTB World)는?

전세계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2004년 11월 22일에 창립되어 전 세계에서 결핵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범국민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북한 지원대상은 강원도 지역인 원산, 안변, 통천, 금강, 고성 요양소 결핵환자들 약 10,000명으로 북한에 꾸준히 결핵약과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제 및 모포 등도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결핵병원도 세울 계획이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의료구호활동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2. 북한 결핵실태

현재 인구통계조차 발표하지 않은 북한에는 120만 명의 결핵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그 중 1/4인 약 30만 명의 어린이가 결핵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환자는 이보다 더 엄청난 수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 사랑을 실천할 때(후원방법)

우리 돈으로 3만원이면 북한의 결핵어린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의 결핵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려고 후원결연 행사를 계획하며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홈페이지 참조: www.zeroTB.net

〈English Ministry (EM) 여름 수련회 를 다녀와서...〉

나의 삶에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EM(English Ministry) 사역은 외국인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성도를 위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려고 존재하고있다. 사역은 영어권 대상으로 하지만 주일예배는 누구나 환영한다.

“빨리 옷 챙기고 가자~~~”

지각을 싫어하시는 남편 Tim님은 출발 당일 저녁에도 분주하였다. 7월 17일 금요일 저녁 EM의 수련회를 위해서 출발했다.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출발하여 대만계 미국인 청년인 Joe를 이천에서 만나서 함께 목적이인 충북 청원으로 갔다. 비는 엄청 많이 오고 번개도 많이 치고..... 결국은 밤 늦게 도착하여 잠깐 모인 후 취침하였다.

토요일 아침, 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수련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을 했다. QT를 각자 하고 조별로 모여 자신의 QT를 서로 나누었다. 어릴 때 모교의 한국어 수련회 이후에는 정말 오랜만에 참여하는 수련회여



작은 공간 안에 여러명이 들어가 팀워크를맞추어 보는 시간.



서 남다른 감회가 느껴지며 쑥스럽기도 하였다. 연애할 때는 남편과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웬지 결혼 후에는 서로의 삶이 바빠서 인지(물론 핑계일 뿐이지만) 기도를 잘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더 많이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다.

낮에는 여러 가지 팀별 게임을 했는데, 나는 몸은 30대 중반이지만, 마음만은 20대처럼 정말 열심히 참여했다. 재미있었던 게임과 친교를 나눌 수 있었던 자유시간은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고, 특히 토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찬양의 은혜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었다.

주일 아침에 조별로 진행된 마무리 모임을 끝으로 EM수련회를 정리하였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의 팀장인 James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팀원들의 수고로움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무엇보다 나의 삶에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이제 또 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유혜선(EM)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다시 돌아오라, 뜻을 세우라!

치열하고 힘든 미국에서의 일년을 보내고 돌아온 나에게 어찌면 ‘당연히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이번 여름수련회는 기대보다 더 큰 은혜이자 위로였고 결단의 시간이었다. 비록 인원은 적었지만, 사랑하는 친구들과 새로 알게 된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낸 2박3일의 수련회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다.

힘든 유학생활을 하며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말씀에서, 찬양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간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배운 첫날. 다시 그 따스한 품 안에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포할 때에, 아무것도 묻지도, 질책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배운 다니엘의 뜻을 세우는 진정한 목표를 잊어버리는 우리 세대에 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배했던 다니엘, 구해주시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니엘, 그의 대담한 믿음을 본받기로 다짐하였다. 수련회 내내 부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곡의 가사처럼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리라’고 결단하면서 다시 갖게 된 용기와 감사는, 그리고 모인 모두가 온몸으로 뜨겁게 드린 찬양시간의다른 것으로는 가



능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참 기쁨’을 주었다.

둘째 날 밤, 처음엔 어색하던 형제자매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며, 어느새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용기를 북돋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따스한 느낌도 잊지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주형 전도사님과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세운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본다.

고진영(고등부)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올 가을부터 늘푸른대학이 개설됩니다!



신·설·모·임

늘푸른대학이란 어떤 곳인가?



65세 이상 성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교육하며 친교 및 여가생활을 통하여 노년생활을 의미있고 유익하게 보내도록 지원한다.

늘푸른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1년을 2학기(3-7월, 9-12월)로 운영하며, 여름과 겨울방학이 있다. 올해는 총 12주 일정으로 9월 15일(화) 개교하여 12월 1일(화) 종강한다.

늘푸른대학 입학자격 및 절차는?

- 입학 자격은 만 65세 이상(1944년 이전 출생)의 주님의교회 교인 혹은 지역 주민으로 한다.
 - 2009. 9/6, 9/13(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입학원서 배부 및 등록을 실시한다(추후 공지).
 - 입학정원은 등록 선착순 200명으로 한다(식사장소의 제약성으로 인함).
 - 등록금은 1인당 15,000원(1학기 당)
 - 위 특별활동 분야에 강사 경험 있는 성도(화요일 가능한 분)를 구하고 있다
- * 문의. 정원영안수집사 010-5339-6464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내 용
10:30 - 11:00	예 배	소예배실	말씀 / 찬양 / 기도
11:10 - 12:00	특 강	소예배실	유익한 정보, 교양 및 건강강좌
12:00 - 13:00	점심식사	식당	엄선 계획된 웰빙 식단
13:00 - 14:00	특별활동	각 반	찬양대, 북클럽, 성경읽기,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탁구, 원예반등 선택